기후변화 따른 생물 다양성 보존 논의

‘국제 섬 포럼 in Yeosu’ 개막
7개국 해양·도서 전문 패널 참가
유튜브 ‘여수이야기’ 생중계

여수~고흥간 4개의 섬을 연결하는 ‘여수섬섬길’. 〈여수시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분위기 조성과 MICE(마이스) 인증도시를 기념하기 위해 ‘2021 국제 섬 포럼 in Yeosu’가 열린다.

여수시에 따르면 포럼은 ‘기후변화와 섬’을 주제로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한국 등 7개국의 해양, 도서, 기후변화, 섬 주민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패널이 참여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한 하이브리드로 방식으로 전 세계 450여 명이 참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일 개회식후 본행사를 위한 기조발표에 이어 4개의 세션 프로그램이 각각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여수청년작가회의 기후변화와 섬 관련 ‘회화 작품 전시회’와 여수 향토 요리전문가가 진행하는 16가지 섬 음식을 체험하는 ‘섬의 맛 이야기’가 준비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개회식을 비롯한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유튜브 ‘여수이야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제 섬 포럼은 여수시가 지역특화 마이스 일환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추진해 온 행사이며, 올해는 지난 8월 9일 유치가 결정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연계해 여수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되는 해남 황토나라테마촌 전경.

해남군, 황토나라테마촌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2023년까지 노후시설 개선 등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박차

해남군 황토나라테마촌이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힐링과 치유의 웰니스(Wellness) 관광 거점으로 변모한다.

해남군은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고,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황토나라테마촌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황토나라테마촌은 지난해 8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란 주제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노후 관광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동 리모델링과 더불어 오토캠핑장에 분산돼 운영 중인 카라반을 황토나라테마촌으로 일원화한다.

바다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숲속 텐트촌 부지에 프리미엄 카라반 등 60실로 규모화해 가족 단위 여행에 맞게 차별화해 나간다. 유휴시설인 공방촌과 진미특판장을 리모델링해 관광객이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판매장도 만든다.

인근 오토캠핑장·땅끝전망대 등 주변 관광시설·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해 해남에서 1주일 살아보기, 꼼지락 어울림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한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땅끝의 수려한 경관과 치유의 의미를 특화해 황토나라테마촌이 체류형 관광지로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농기계임대료 카드로 결제 하세요

영광군, 농가 편의 증진 도입
재난지원금도 사용 가능

영광군이 농가 편의 증진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결제 방식을 개선했다.

영광군은 기존에 온라인 계좌이체와 고지서 발급 후 현금으로 납부하던 농기계임대료 결제 방식에 ‘간편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제시스템은 현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각종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 줌으로써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간편 카드결제 시스템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롯해 영광사랑카드로도 임대료 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도 농기계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농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방안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할인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8125명이 반값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간편하고 편리한 카드결제를 통해 임대료 납부가 보다 수월해졌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지역 한 농업인이 신용카드로 농기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곡성정신건강센터 ‘지역민 정신건강 지킴이’

복지부·전남도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서 2관왕을 수상했다.

곡성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우수기관’, 전남도 정신건강증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소한 곡성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코로나19 심리지원사업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와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곡성정신건강센터는 이재민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곡성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민의 정신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 개발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무안군, 농산물 가공 전문가 양성 주력

가공지원센터, 창업 교육

무안군이 농산물 가공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안군은 오는 27일까지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심화반 교육을 실시한다.

상반기 완료한 기초반 교육 수료생 2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마인드 및 식품 위생안전, 식품제조, 상품기획, 제품개발, 마케팅, 유통, 경영 등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창업 아카데미 심화반은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해 가공센터에 비치된 세척, 건조, 분쇄, 농축, 포장 등을 할 수 있는 가공장비 64종을 이용해 건조(분말제품), 볶음(침출차), 추출(즙) 등 제품을 직접 생산해 포장까지 완성하는 실습시간을 갖고 있다.

2개 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료생은 개별투자 없이도 황토실이라는 농산물가공 공동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더나음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산물가공센터를 공동 사용해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 제품화 할 수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